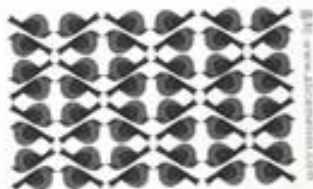


한땀. 한땀
이어가는
소모임 네트워크
2009년의
여성주의 소모임이
여기여기 모였습니다.

〈날려라! 빗자루〉
〈농담〉
〈물구나무〉
〈물음표〉
〈신타래〉
〈앨리스〉
〈포큐파인〉



2009 여성주의 소모임 네트워크
club.cyworld.com/cocktail2009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물림〉
web.yonsei.ac.kr/ysfem
woolim@yonsei.ac.kr



- 1 Part 1. 학교에서 여성주의하면 참 좋아요 >_<
 2 여성주의 소모임, 여기 여기 모여라!
 4 왜 '여성주의'라고 부를까?
 7 "날 위한다구? 정말?"
- 10 Part 2. 여성주의 소모임, 해봐요!
 13 여성노동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날려라, 빗자루!'
 빗자루를 날리자!
 14 여학생 농구단, 농구로 답을 허무는 '농담'
 여자들만의 풍요로운 공간
 여학생으로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
 18 툭쭈 툭쭈, 여학생의 심장이 뛰여라!
 19 공대생의 일상에, 달아라 '물음표'
 우리의 일상에 '물음표' 달기
 '공대녀', 여성주의를 만나다
 물음표, 이렇게 같이 해봐요.
 22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는 '물구나무'
 물구나무 홍보글
 물구나무 책소개
 24 우리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실타래'
 사회대 여성주의 소모임 '실타래'
 네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나만의 실타래를 풀어낸 1년
 실타래에서 강!력!추천하는 책들!!
 30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수천만가지 방법
 32 이상한 나라에 던지는 질문 '앨리스'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앨리스'를 소개합니다^^
 함께 고민하기, 그 속에서 찾아가는 의미 있는 재미니즘.
 앨리스에서 함께 읽은 책
 38 꿈과 사랑의 여대생 만화잡지 '포류파인'
 포류파인 이야기
 41 소모임 네트워크, 함께 해요!

학교에서 여성주의하면 참 좋아요

>_<



여성주의 소모임, 여기 여기 모여라!

우리 학내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접하고, 또 그 속에서 다양한 이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공동체에서 생활하다보면 어느새 대자분 같은 현상을 접하게 돼요.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술자리, 게임, 애써 여남을 얻으려는 커플 놀이,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외모 평가 등등. 이렇게 반복되는 레퍼토리는 별로 즐겁지도 않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 문제적인 발언들이 건잡을 수 없이 쏟아져서 참기 어려울 만큼 불편하기도 하지요.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몇몇 남학생들의 주도로 형성되는 남성중심적인 공동체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어 집에 빨리 가야되는데 모임은 매번 새벽녘까지 이어지고, 술 취한 아이들이 음담패설이나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해대고, 이런 상황이 힘들어서 집에 일찍 가면 매일 술자리에 빠진다고 공동체에 헌신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들곤 하지요. 그렇다고 술자리에 매번 남아 있으면 난 집에 안 들어가도 되냐 여자에게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이나 듣고 말이지요. 물론 이것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다른 지점에서의 불편함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불편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공동체 안에서 주도적인 집단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 문화를 성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적응도 못하면서 괜히 딴지나 건다고 손가락질하기 십상이죠. 아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성주의 소모임들은 이렇게 갑갑한 공동체 문화를 조금이나마 바꿔보려고, 아니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속닥속닥 재밌게 놀아보려고 시작되었답니다. 여성주의 소모임은 기존의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자리예요. 집단의 이름 아래 모두를 똑같은 모습으로

묶어내려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마음을 맞추어가는 자리이지요.* 여성주의 소모임에서는 또한 각자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즐겁게 수다를 떨며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농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여학생들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사회적 규범을 가볍게 날려 보내기도 해요. 여성인 나에게 노동이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미화직 여성 노동자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며 연대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그려보기도 하고요. 기독교 신학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모임도 있어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마음껏 제각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소모임들이 탄생되었지요.

물론 왜 끼리끼리 노냐는 눈초리와 험담들 때문에, 끊임없는 편견 때문에 여성주의 소모임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싶기에, 오늘도 여성주의 소모임은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공동체에 문제제기하며 꾸준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함께 모여 힘 받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여성주의 소모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는 자리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책에 소개되는 다양한 여성주의 소모임들 중 끌리는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함께 해요~ 아니면 내가 직접 여성주의 소모임을 만들어볼 수도 있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온전히 서로를 긍정할 수 있는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정말 멋진 거예요! 우리 함께 해봐요!

_혜연

* 이러한 것을 '연대(solidarity)'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기존의 공동체 문화를 주도했던 것은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 연대였고, 그 연대에 포섭될 수 없거나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지요. 여성주의 소모임에서의 연대는 기존의 남성 연대가 억압해왔던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공동체 문화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여성주의'라고 부를까?

여성주의? 그게 뭐지?

«행복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에서는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라고 여성주의를 정의합니다. 착취? 억압? 무언가 엄청나고 나와는 관련 없을 것 같은 단어들 갑니다. 무엇이 억압받고 어떤 것이 착취하는 관계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단어를 하나하나 풀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성주의라는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성차별주의를 종식시킨다"는 이 간단명료한 정의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여성주의는 여성을 제일로 해야 한다는 '여성우월주의'라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여자편'이라는 억측과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성주의라는 이름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름이 '여성주의'인가?
'성평등주의'라고 해야 더 맞지 않나?"

여성주의라는 이름이 그 자체의 정의와 의의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할뿐더러 여성우월주의처럼 들린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문어를 Feminism을 잘못 한역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기로 합시다. Feminine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뜻풀이가 되어있습니다.

(네이버 영어사전)

1. 여자의, 여성의; 여성다운(womanly): 상냥한, 연약한
2. «경멸» 남자가 여자 같은, 나약한(womanish)
3. 【문법】 여성의(cf. MASCULINE, NEUTER)
4. 【운율】 여성 행말(行末)의, 여성운(韻)의

Feminine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다운, 연약한, 나약한 거기에 더하여 생물학적 남성을 경멸할 때도 쓰이기도 하는 '여성적인 어떠한 이미지'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Feminine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남성성'의 반대개념으로써 '여성성'은 대등한 위치의 대립항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여성화가 되는 객체나 집단은 나약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것처럼 여겨져 유/무형의 억압을 많이 받지요.

누구나 들어봄직한 예를 들어봅시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과 동양을 가르면서 "서양은 남성적-이성적-문명을 대표하고 동양은 여성적-육체적-미개"하다는 논리로 서양이 동양을 "문명화"시켜주겠다는 논리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주의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동양이든 서양이든) 깔려있지요. 이처럼 나라나 지역이 '여성적'이라고 평가받는 과정은 약자, 타자가 되는 과정과 맞물려 왔습니다.

또한 여성화 되는 일, 여성이 전담해 오던 일,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일 등은 대부분 낮은 가치평가를 받아왔지요.(혹은 낮은 가치평가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이 전담하는 것일 수도) 여성들은 오랫동안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전담해 왔고, 그런 일들은 오래 여성적인 일로 치부되어 왔지요. 그 연장선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

세상에는 두가지 성 남/여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정해진 성역할에 끼워 맞추려는 사회 통념. 이로 인해 많은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억압받는다.

**

그 사회의 가치기준에 따라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약자. 장애인, 어린이, 여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약자여서가 아니라 '비장애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짜여진 사회구조 안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논리에 따라 그들은 '보통사람'(비장애인 성인 남성기준)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약자라는 식으로 구조화 됩니다.

보육시설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평가절하 되는 '여성화된 일'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요리, 미용 산업에서 높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일류 요리사, 디자이너들은 남성이 많다는 사실은 가끔 이 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합니다)

'Feminine'은 견고한 성별이분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씌워지는 이미지의 굴레이기도 하고, 저평가 되는 일과 사회적 부담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워지는 이데올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eminine을 말하는 것은 억압받고 가려져 있던 약자들을 드러내는 단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편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문명, 발전, 이성의 역사에서 억눌려 있던 다양한 '여성화된 가치'들을 말하면서 기존의 가치들이 정말로 '보편타당 한지'를 되물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구중심의 역사서술, 발전논리에 파괴된 자연, 자본의 논리에 희생된 노동자들, 선진국의 힘의 논리에 무너진 제3세계 민중들 등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에서 Feminine을 가장 가깝게 설명하는 단어는 '여성' 혹은 '여성성'이겠지요. 그래도 아직도 여성주의의 '여성'하면 생물학적 여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이름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슬그머니 드는 의문 하나! 이렇게 따지고 해명(?)하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가요?

사실 '사회주의'의 이름 안에 사회라는 광범위하고 보호한 단어로 인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억측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이름은 이름이 생겨날 당시의 여러 맥락에 따라 지어지고 호명되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의 이름에 관해 억측과 소문만이 무성한 것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해하고 싶은 심리가 아닐까요?)

그래도 이런 의문들이 생각과 고민을 낳고 '왜?'라는 고민들이 모여서 답을 찾으려고 허우적대다보면 소통과 이해의 길이 찾아지지 않을 까요?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아요^^

_로그

“날 위한다구? 정말?”

—'여성'에 대한 수많은 말들 속에 길 잃지 않고 살아가기

1.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내놓고 담배를 피웠다간 모르는 사람(이런 건 주로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들이다)에게 욕을 들어먹거나, 난데없이 (진짜로!) 뺨을 맞기도 했다는 일화들 들을 때면 어안이 병병해진다. 그럼 지금은? 지금도 여전히 담배 피는 여성들은 규제를 받지만 그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다. 주위 사람들은 담배가 그녀의 외모 관리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해 주기도 하고, 연애에 걸림돌이 될 것을 걱정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임신과 출산과 아직 있지도 않은 2세 걱정까지, 구구절절 '그녀를 생각해서' 담배를 끊을 것을 권유한다. 오늘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건 "어디 감히 여자가!!"하는 노골적인 외양을 띠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와 같은 부드러운 말인 경우가 많다.

흡연 문제 말고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이런 친절한 충고(?)들은 끊임없이 여성들을 검열하고 통제한다. "너 요즘 살쥔 것 같아" "엔 화장도 안하고 다니니?" "여자가 이렇게 늦게 다니면 위험해, 남들이 쉽게 본다니까" 등등...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든, 내 옆의 여자 동기나 후배를 향한 것이든, 나는 때면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하하하, 에이 뭘, 웃음으로 매워 넘기곤 했다. 대답을 더 어렵게 했던 건 그 말이 마치 '그녀에 대한 배려'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발끈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라도 있을라치면, 아니나 다를까 "다 널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하는 대답이 돌아온다.

2.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 여성들은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길을 택했다. 그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니까. 텔레비전과 잡지에 나오는 성공한 여성이 되려면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다. 능력 있으면서도 아름다워야 하고, 당당하면서도 '거슬릴 만큼' 너무 뽀뽀는 않아야 한다.

이 시대는 워낙에 자기계발로 사람들을 움직이지만, 그 자기계발 서적들 역시 '여성'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것들을 요구하며 특화되어 나온다. 이를테면 밝은 미소와 목소리 톤, 화장법, 몸매관리(헬스나 재즈댄스, 요가)와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성공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여대생들을 돕는 '여대생커리어센터'도 학교마다 설치되고 있다. 학교와 기업이 손을 잡고 알파걸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프로젝트도 많다. '당신도 알파걸이 될 수 있어요!'

알파걸은 마치 여성 상위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환상을 유포하는데, 정말 그럴까? 어쩌면 그건 여성들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얼마나 악바리같이 살아가려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여자들은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 항상 바빠. 이기적이야.", "요즘 여자들 기가 세다. 무섭다." 하는 답변들은 기존의 공동체 문화가 여성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여학생이 공동체를 떠나가는 이유들), 졸업 후에 진출할 사회의 구조가 이미 여/남에게 차별적이라는 사실(더 아동바둥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교묘히 가린다.

여성을 이미지화하는 단어들은 다 그런 식이다. 결혼하지 않고 화려한 커리어우먼으로 사는 '골드미스'도, 여성들이 취직 대신 일찍 시집을 가는 현상을 일컫는 '취집'도, 항상 네티즌들의 분노의 댓글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여성들은 왜 이리도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나고 그들은 묻는다. 여성들에게 일이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인가에 현실의 여성들이 일과 결혼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지는 묻지 않는다.

#3.

'여성'이란 말이 붙으면 다 페미니즘인 줄 알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주어지는 것들이 다 덤석 받을 만큼 좋은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에게 불리한 게 있으면 '배려해주는' 건 아니다. 어두운 밤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이힐이 끼지 않도록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 될 것처럼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지금 여성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진짜 현실은 그런 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페미니즘을 만난다는 것은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고, 듣지 못하던 목소리를 듣고, 말할 수 없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험이었다. 반짝반짝 거리는 소수의 여성에 온 세상이 주목하는 동안에도 현실에 허덕이던 수많은 여성들, '다 너를

위해서...' 운운하던 말들 속에 어떤지 숨이 막히던 나의 기억.

그러나 알면 알수록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온전히 나로 살기 위해서는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에 대한 공감과 위로인 동시에, 차이가 차별이 되고 평등이 똑같은이 되어버리는 지금의 세상을 바꾸려는 몸부림, 일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함께 할수록 힘이 나는 일. 함께 하는 몸부림으로 이 세상을 들쭉이는 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유미



여성주의 소모임, 해봐요!





깊은 산속 웅덩옆에서
누가 와서 먹물진 물라도
달콤 씹어먹은 요리를 만들어 볼래

조곤조곤 실타래를 풀어 기다리게 이어진 우리의 언어들로
덜컹덜컹 베를 파 식탁보를 만들고
따끈하게 데운 프라이팬에 향긋한 올리브유와 함께 물음표를 볶아보자
탁탁 튀는 기름에 물음표가 앞상에서 툭 툭 터져 나오겠지

어메 저기 죽을 수도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그녀가 사랑하는 여왕님과 손을 잡고 팔랑팔랑 오네
그 뒤로 웅덩옆물이 마시고픈 토끼가 여왕님의 트럼프를 들고 강충

"내가 보이지 않니?" 어디선가 날려진 빗자루가
땅의 갑찰들을 훑을 털어버리고
공중에서 해방의 춤을 출라출라 추고 있을 때

팡 팡 수 천 만개의 가시날개를 단 산미치광이가 달려와
날으는 빗자루를 쥐고
하늘위에 시럽으로 그림을 그려

그럼 그 달콤 끈적한 시럽이
음식 위로 꿀떡 꿀떡 떨어져서
이제 상큼발랄 먹물 시간

물구나무를 서보자
들리지 않았던 들꽃내음과 흙내음이
씨아-하게 입안으로 들어 올거야.

뛰는 심장처럼 새빨간 토마토를 신나게 던져보자
터지는 새콤한 과즙은 농담처럼 번지는 우리의 웃음

자아, 이제 뜨겁게 달리는 우리의 심장을 하늘높이 던져보자

여성노동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날려라 빗자루!>

/왜 연세대를 청소하는 노동자는 여성뿐일까?
/식당 노동자들도 대부분 여성... 왜지?
/텔레마케터들은 왜 또 여성일까?
/왜 경비노동자는 모두 남성일까?
/왜 일자리가 여성남성이라는 성별만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을까?
/여성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노동권리는
무엇일까?
/여성주의적인, 성평등한 노동은 어떤것일까?
/직장에서의 일반 노동일까?
/집에서의 가사일은 노동(labor)이 아닌
일(work)일뿐일까?
/성노동(sex work/sexual work)는 대체 뭘까?

끝없는 의문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공공거리다가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다는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데,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일은 들도 보도 못했습니다.

다양한 공간에 모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기업이 보장하지
않는, 국가가 신경도 쓰지 않는 현재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질문들을 더 키워나가려 합니다.

거울방학에는,

·2008년 날려라 빗자루 평가

·나에게 여성노동권이란?

·00과 노동자의 연대란?

을 주제로 자유롭게 쓴 글들을 같이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학기에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사회문제들
등을 정세 속에서 짚어내고 그렇게 짚어낸
나의 고민을 풀어낸 뒤 함께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궁금증을 줄줄이 늘어놓지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갇히지 않는, 손발을 함께 움직이며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대체, 여성노동권이 무엇이지? 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 같이 고민하고, 또 다른 고민들을 나누고,
움직여요! 예이!

1 010 8990 4746, 국어국문학과 유나로
연락주세요.



여자들만의 풍요로운 공간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하고나서 1년 동안은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여중, 여고를 다닌 제가 남학생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남자 선배들, 동기들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잘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연애 후보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지요. 연애 후보인 쪽과 아닌 쪽 사이에 서열이 매겨지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지도 전자에 속하고 싶어서 남자들이 좋아할만한 말투, 행동, 옷차림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정해진 틀에 맞추게 된 것이지요.

또 한가지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왜 선배들의 대다수는 남학생일까? 여자 선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여자 선배와 1학년 여학생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학생 여학생들은 남자선배들만큼 자신을 예뻐해주지 않는 여자선배를 잘 따르지 않았고, 여자 선배들은 자신들이 1학년이었을 때 받았던 애정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제가 2학년 선배가 되었을 때 선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반 공동체 안에서 멋진 선배의 모델이란, 술을 잘하고 객기도 부리며 웅원 좋아하는 호탕한 남자 선배였어요. 제가 여자선배로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멋진 선배의 모델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재수한 남자후배들은 제 남자동기들에게는 선배대접을 했지만 저에게는 선배대접을 해주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남여공학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에 대해 비판하게 되었어요. 여학생을 여자친구 후보감인가 아닌가 하는 편협한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공동체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학생을 여자가 아니라 그냥 동료로 바라봐주는 공동체를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연세춘추에서 여자 농구 소개글을 보았습니다. 곧바로 연락을 취했지요. 남성 중심적 공동체에서 제가 받았던 행동의 제약들을 모두 벗어던져버리고 싶었거든요. 남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태도나 옷차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농구와 같은 팀 스포츠를 하면, 제가 1,2학년 때 느꼈던 여학생들 사이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팀워크를 통해 여학생들 사이의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담에서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 전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남학생들은 형 아우 하면서 나이 서열 매기지만, 농담 친구들은 서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여자 선배들 사이의 어색함 같은 건 없어요. 농담 친구들은 캠퍼스에서 흔히 보는 조신한 여학생들이 아니에요.

승부를 즐기고 격렬하게 공을 빼앗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남학생들과 함께 농구할 때는 남학생들이 나를 쳐다볼까봐 잘 못뛰기도 하고 몸을 사리기도 하는데, 농담에서 여학생들과만 농구를 하면 행동의 제약이 사라져요. 내가 주체가 됨을 느낄 수 있지요. 누군가의 여자친구(후보)가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코트에 퍼지는 땀냄새, 드리블 소리와 철썩하는 슛 소리, 그리고 해방감. 저와 함께 느껴보지 않으시겠어요?

—승연

신촌 동네 여학생 농구단*

농구로 담을 허물자

*club.cyworld.com/nongdam

0118365974(파니)

무엇?
정기연습 (패스, 슛, 드리블)
가끔 친선경기

언제?
일주일에 한번.
(평일 때 번개!)

여학생으로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

-그저 너무 재밌어서 운동을
하고 싶었던, 싶은 소심한 인간의 글

난 어렸을 때부터 운동(축구, 농구 같은
구기종목운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도 여자인 내가 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여자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왠지 특이한
일로 여겨졌고,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애들이었다. 그 틈에서
남자 아이들과 어울리며 운동을 하는 것은
뛰는 행동이었으며, 남들의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을 받게 되는 행동이었다. 난 뛰고 싶지
않았고(성역할규범을 벗어났기 때문에
핀다는 게 두려웠고), 차마 그런 시선을
감당하면서까지 운동을 할 자신은 없었다.

중학교는 여중을 다녔다. 여중이라서
시선을 덜 느낀 것 같고, 그래서 더 편하고
재밌게 운동을 했던 것 같다. 중3때는 체육시간에
축구공을 지그재그로 물고 가는 시험을 본
적이 있었다. 축구로 시험도 보는데 실제로
축구를 하자며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축구를
했던 적도 있었다. 축구골대도 없는 작은
운동장에서, 한번 그렇게 신나게 하고서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축구부를 만들어야겠다고
서로 말하기도 했었다.

고등학교는 공학이었는데, 점심시간과
저녁식간에 넓지 않은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는 건 거의 다 남학생들이었다. 언젠가는
영어선생이란 작자가 이런 말을 했었다. 너희
선배 중에 남자애들하고 매일 농구를 하는
여자가 있는데, 치마를 입고 남자애들
사이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고. (영어나 제대로 가르쳐!! --)

어쨌거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시간 있는
체육시간에는 여자애들과 종종 농구를
하기도 했다. '농구하자! 농구하자!'하면

'그렇까?'하면서 하는 애들은 꼭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재밌어서 저녁 먹고 야자
전에도 하고 싶었지만, 골대가 비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간혹 비어도 웬지 너무 뻔뻔해서
저녁 때 농구를 한 적은 없었다.

고1때가 고2때가 우레탄 바닥으로 된
새 농구코트가 생겼다. 새로 농구장이
생겼다고 학생회에서 남자 농구경기를
주최했다. (마로 체육대회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였는데, 남자 축구경기도
있었다.) 여학생들은 하는 것이 없었고, 이게
불만스러워서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다가
농구코트가 새로 생겼는데 여자는 뭐 안
하냐고 글을 썼다. 그랬더니, 농구코트에서
여자..... 피구경기를 했다. 여자가
농구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워낙 여자애들이 농구를 할
기회가 없고 해서 남자애들만큼 잘하진
않겠지만 하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위안 삼을만한 건 피구경기 준비한다는
기간만큼은 여자애들도 운동장에 나와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경기를 준비했다는 거.
물론 피구도 좋은 운동이기는 하다. 근데 왜
꼭 여자애들은 피구고 남자애들은 축구
아니면 농구인 건지??

어 그래 뭐 그렇다—이러하며 살다보니
몸을 움직일 기회도 참 적고 기회가 생겨도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이리저리 눈치 보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거나, 근데
기회가 와도 혼자만 하기도 그렇고.. 재미도
별로 없고.. 그나마 체육시간이 운동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라서 활용했던 거고.. 그냥
편하게, 재밌게 운동하는 게 왜 이러
수고스러워야 하는 건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어디에 꼭꼭 숨어있는 건지..

그러다가 '농담'을 만났다—혼자
농구코트에서 눈치 살피며 공 뛰기다 온

언니도 있고, 학내 운동 동아리 들어가서
매니저 하다가 온 언니도 있고.. 다들
다양하지만 비슷한 사연을 갖고, 그냥 재밌게
농구하고 싶은 마음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여자들끼리 신나고 즐겁고 피터지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공간, 정말 소중한.
이런 소중한 공간들이 다양하게 많이 많이
생겨, 운동장에서 거리낌 없이 뛰어다닐 수
있게 되기를..!

_라임



폴짝 펴, 여학생의 심장이 뛰어라!

심장을 쿵쾅거리며 운동하고 싶지만 남의 시선. 혹은 여학생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 자유로이 뛰놀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붙이고, 훨훨 날아 나비처럼 사뿐하게 땀을 쏟아보아요.

운동하는 언니들

- 농구하는 언니들, a-sister[어시스터](<http://www.unninet.net/basketball>) : 언니네라는 여성주의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언니들의 농구모임. 매주 3시간 정도의 정기모임이 있고 그 안에서 농구도 배우고 게임도 한답니다.
- 축구하는 언니들, 픽토 야간 축구회(<http://www.unninet.net/soccer>) : 역시 언니네에서 만들어진 언니들의 축구모임. 매주 토요일 저녁에 이화여대 진다구장에서 픽토 전용골대로 축구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공차는 법부터 알려주는 모임입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다소곳한 자세'를 사회적으로 요구받으며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없었던 여성들이 자유로운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에 대항하는 훈련이지만, 호신술과 다른 점은 여성주의적으로 내 몸을 다시 바라보고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단순히 자연적인 것. 여성이 힘이 약하다는 것은 바꾸기 힘든 사실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몸'과 '움직임' 역시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영역의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우리의 몸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가 새로운 변화를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예요!
- 2007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날자2'(<http://cafe.naver.com/2007mybody>) : 2007년 11월 4일 ~ 2008년 2월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진행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모임입니다. 이야기 나누기로 시작된 모임이 체력운동, 태권도 기본기술 배우기, 몸의 감각 키우기를 통해 으쌰으쌰 힘을 만들고 마지막 주엔 송판 깨기와 파티로 마무리! '날자2'가 끝나서 아쉽다면 주변의 친구들과 몸을 움직이는 모임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때요?

혹시 혼자 농구 연습을 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여자프로농구 인터넷 생중계(<http://www.wkbl.tv>)에 가면 전주원선수가 알려주는 농구 훈련법이 동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 드리블, 패스, 샷 등 기본적인 기술들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니 들어가 보세요!

_파니



공대생의 일상에, 달아라 <물음표>

우리의 일상에 ?<물음표> 달기

물음표는 2008년에 시작한 공대 여성주의 소모임입니다.

왜 나는 예쁘게 하고 다녀야 하지? 여자라서?
왜 나는 병맛을 할 수 있어야 하지? 남자라서?
그 많은 나의 특징들 중에서 내가 어떤 학번이라는 것, 내가 어떤 성별이라는 것 등으로 쉽게 나를 단정짓는 사람들, 하지만 나에겐 더 많은 모습들이 있어. 내가 '나'일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내가 나일 수 없는 건 나의 잘못이 아니예요. 물음표, 그래서 뭐 하나구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여서 정해놓은 주제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요. 수다 떨어보기 전에 주제에 알맞은 적당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제에 맞는 책이나 신문기사 등등을 같이 찾아서 커리에 포함시키고, 하다가 더 생각나는 좋은 주제들이 있으면 추가하기도 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 다만 주제가 있는 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물음표 안에는 성별권력도 나이권력도 학번권력도 없어요. 친해지면 말을 놓으면 되고, 불리우고 싶은 이름이 있으면 그 별명으로 서로를 명명하기도 해요. 내가 나이고 싶은

때, 나를 재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토닥토닥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물음표를 해방의 열쇠로! 물음표, 한 번 달아볼까요?

>_<

여성주의로 물음표 달기!

이번학기에 함께 달아볼 물음표들)

여성주의는 여성우월주의? 알파걸의 이기심?

...여성주의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뭘까??

왜 너희들끼리만?? 하지만 필요해!

...왜 여학생 소모임이 필요할까??

엄마, 아빠, 가족, 여성성/남성성, 본능일까, 사회화일까.

...남성성/여성성,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민 여동생' '우리의 처녀들' '우리의 딸들'

여기서 '우리'는? 딸들은 '우리'가 될수없는가.

...여성들을 타자화하는 이미지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내규, 내규, 또 그 얘기야? 지겨워. 하지만 해야해.

...성평등자치규약, 대체 무슨 애긴지 한번 들어볼까??

또 뭐가 있을까?

...당신의 물음표도 함께 나눠요!

등실등실~떠다니는 우리의 물음표들, 함께 나누어봐요 >_<

물음표는 성별, 나이, 학번 같은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ㅋㅋㅋ 진짜라는.

1 거울 010 5385 3127

“공대녀”, 여성주의를 만나다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든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그때, 나에게 내 자신에 대한 의문만이 가득했던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술을 못 마실까?’ ‘나는 왜 남들을 잘 웃기지도 못하고 사교성도 없을까?’ ‘예쁘기라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자기들끼리 일파만는 등 각종 스킨십을 하는 남학우들을 보며) ‘내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쉽게 친해질 수 있었을텐데’ 그랬다. 나는 예쁘지도 않았고, 웃길 줄도 몰랐고, 적당히 여성스럽지도 않았다. 미디어에서는 제3의 성 공대녀라는 남성화 된 캐릭터를 웃음 포인트로 계속 띄우지만 나는 당최 그것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인지, 그러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했다. 이러나저러나 나는 점점 여성으로서의 나를 더욱 더 부정하고, 스스로 여성을 혐오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거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주의가 나에게 와서 소근거렸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다. 내가 ‘여성스럽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성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를 억압하는 주변의 시선들이 문제인거였다. 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보였던 억압은 ‘여성’이라는 것이었지만, 여성주의의 눈으로 다시 보니 세상에는 너무나도 억압적인 것들이 많았다. 여성스럽지 않다고, 남성스럽지 않다고 웃음거리가 된대거나,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성별 분업과도 같은 성차별적인 억압도 있고, 효율과 경쟁의 논리에 밀려서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장애차별의 억압. 오로지 먹기 위해서 인간의 이윤을 위해서 좁은 우리에서 길러지는 식용 동물들에 대한 억압, 하여간 내 주변의 관계맺음을 하나하나 성찰해보면, 수많은 억압들이 발견된다.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혹은 의식하기 싫었던 억압들이 곳곳에 산재해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고민하고, 드러내고, 깨어나야 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녀”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로 살고싶었다. 내가 섣달 술을 잘 마신다고 해도, 남자였더라도, 예쁘고 여성스러웠다고 해도 여전히 힘들었을 거다. 세상은, 내가 나인 채로 살도록 두지 않았다. 쉽게 나를 재단하고 싶어했고, 자꾸만 어딘가의 틀에 몰아넣었다. 특히 ‘여성’이라는 틀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끔찍했다. 그러한 끔찍함들이, 자꾸 가려져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숨도 쉬지 말라는거야? 같이 숨구멍을 뚫어보기로 했다.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 내가 억압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와 내 주변에 주렁주렁 달기 시작했다. 그것이 물음표였다.

이 억압적 틀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물음표를 걸고, 어느 순간 그 닫힌 문을 물음표란 열쇠로 철썩, 열고 이 틀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나 힘들다. 서로의 물음표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자. 서로를 다독이고 함께 공부하는 소풍과 치유와 지지의 공간을 만들어가자. 상처받았다면, 의문이 든다면, 물음표에 함께 하자. 함께 해방의 열쇠를 쥐자.

—윤재



물음표, 이렇게 같이 해봐요.

인터넷 만화 중에 공대 C.C.의 결혼식이 나오는데 웃음을 유발하고자하는 마지막 장면은 하객이 모두 남자인 장면이다. 공대 학생의 대다수가 남자라는 상황을 당연히 했기에 웃길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내가 속해 있는 반의 남녀 비율이 8:1이니 9:1이니 할 때 종종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위의 만화가 웃기지 않았고, 부러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다. 친구로서 여남의 차이를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친구들이 더 편하기도 여자 선배들이 더 필요로 하는 순간이 종종 있었다. 내가 여자이기엔 생기는 고민을 함께 나누기에는 공대에 여자 선배, 여자 동기는 너무 적었다. 적은 데다 나를 포함한 그녀들의 학년도, 반도, 활동 공간도 다르기에 가까이 하기 어려웠다. 대학에 와서 처음 접한 공동체였지만, 한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나에게 여자 선배, 동기가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만큼만 있었다. 그만큼 더더욱 공대를 멀리하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꼭 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접하는 공동체에서의 안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물음표가 앞으로 공대에 들어오거나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공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성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임, 대학 안에 남아있는 군대문화를 지우기 위한 모임, 공대 안에서 아직은 깊숙이 배어있지 않은 성평등 자치규약이 익숙해지게 하는 모임이 되는 것도 바라지만 앞서 언급했던 편안한 공간으로써의 물음표를 더욱 원한다.

종종 마주치는 공대 안의 여학우들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여성이라서 느끼는 일상의 불편함부터 그냥 즐겁고 웃기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자. ‘왜 여자라고 축구모임의 매니저만 해야 하는 거야?’란 물음에 당장 다 같이 그 축구모임으로 달려가 이 아이를 선수로 뛰게 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라고 매니저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대답하며 함께 고민하고 용기를 갖게 하자. ‘왜 공대에는 층층마다 여자화장실이 없는 거야?’ 같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물음에 함께 허를 차기도 해보자. 공대의 여학우들이 자신이 너무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반에 자신을 맞추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할 때 이들을 잡아주자. 너무 사소한 것 같다고? 그렇지 않다. 나 혼자 책망해야 하고 혼자 삭혀야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보자!! 나는 벌써 내가 바라는 물음표를 상상하며 즐겁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정말 이런 모임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며 마지막으로 물음표가 즐겁고도 편안한 모임으로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

—윤

여러분 물구나무 서보셨나요?
가끔 보면 일상적인 곳이 아닌
거꾸로의 세상 조금은 힘들지요.
연습도 많이 해야 해요.
하지만 거꾸로 본 세상은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물구나무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안에 있는 여성신학동아리입니다.

기존 학회의 틀을 조금씩 부수고 공부하며 실천하는 모듬살이로써 함께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소수자로서, 약자들과 연대함으로 물구나무에서 나를 찾고 함께 이야기하는 마당을 열어줍니다.

'여성신학'은 뭐냐고 많이 묻지요. 여성신학은 '아버지 하느님'으로서만 부각되던 하느님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하느님의 여성성을 찾고 해석하며, 성서 속에서 가리워지고 배제되어왔던 여성들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그녀들의 목소리를 되찾는 일에 집중합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대한 분석과 우리 여성 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 또한 '여성신학'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남성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왔던 기존의 성서와 교회문화에 대해 대안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권위주의적인 장막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하느님의 더 넓은 창조예의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여성성에 대한 긍정으로 출발했던 여성 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는 소수자들과 성별,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연대합니다.

가부장적인 주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신학이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신학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흑인신학, 제3세계 신학, 생태신학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싶은 학우분들을 환영합니다!

상상해보셨나요?

평등한 관계 맺기, 서로서로가 맘을 열어 나누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열정에 실컷 울고 실컷 웃는 날들을. 물구나무와 함께 조금씩 겹질을 깨고 세상을 향해 날갯짓 하는 소망을 이루어 봐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웃고 즐기고 노는, 그런 신나는 여행을 꿈꾸어 봅니다. 물구나무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문 두드려 주세요~^__^



물구나무서서 뜨거운 심장의 피가 뇌로 철철 흘러넘치기를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는
 — 물/구/나/무

1 소라 010 2798 2478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10개의 비밀»
 살림이스트 지음,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함,
 명사 '살림'에서 나온 말) 현경



세계 진보신학의 명문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의 165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여성 종신교수.

상처 받은 '나'를 치유하고 싶은 사람,
 진정한 '나'를 찾고 싶은 사람,
 모든 것을 살려내고 싶은 삶...
 이러한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여신들이여, 깨어나라! 그리고 함께 모든 것을 살려내자!

—지구 살림 민병대 여성 전사들에게 보내는 여신의 설계명

1. 여신은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2. 여신은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한다.
3. 여신은 기, 끼, 짱이 넘친다.
4. 여신은 한과 살을 푼다.
5. 여신은 금기를 켜다.
6. 여신은 신나게 논다.
7. 여신은 제 멋대로 산다.
8. 여신은 과감하게 살려내고 정의롭게 살림한다.
9. 여신은 기도하고 명상한다.
10. 여신은 지구, 그리고 우주와 연애한다.

그녀의 다른 도서들...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아시아 오누이 전설에서 원래는 여자가 죽어 태양이 된다는 이야기였으나 후대로 오면서 남자가 태양이 되는 이야기로 바뀌어졌다는 것에 착안하여 다시 여성들이 태양이 되는 이야기로 복원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거야»
 «현경과 엘리스의 神나는 연애»

우리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실타래>

사회대 여성주의 소모임 <실타래>

“사회과학대 ○반에 배정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도 대학생이 되었다는 데 실감이 나지 않아 얼떨떨한 때쯤, 내가 속할 ‘반’ 선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는 친절한 목소리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날짜와 시간을 안내해 주었지요. 그제야, 이제 대학생이구나, 실감했어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는 오프 날, 처음 만난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다 문득 선배들이 모여 있는 쪽을 보게 됐어요. YONSEI가 큼직하게 박힌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선배들은 죄다 남자였죠. 여기는 여자 동기들이 더 많은데, “왜 여자 선배들은 없어요?” 혼잣말 같은 내 질문에 한 오빠가 여전히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이기적이어서 반활동 잘 안 해.” 나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나오지 않는 큰 목소리를 쥐어짜내어야 하는 FM도, 들어가지 않는 술을 억지로 마셔야 하는 선배들과의 술자리도, 피곤하다고 먼저 집에 갈 수도 없는 밤들도 고역이었지만, 이런 게 대학생활이라는 말에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들 끼리 모여서 쇼핑도 가고 커피도 마셨는데, 여자친구들끼리 한번 모일라치면 왜 너네끼리 모이냐는 유무언의 압박에, 재미도 없는 축구경기 용원을 가는 일도 지쳤어요. 더 이상 내가 놀던 방식대로 놀 수 없다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반을 빼놓은 대학생활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공강 때 가 있을 곳은 반방 뿐이었고, 술자리에 한 번 빠지면 그 다음날부터 나는 모르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괜히 소외받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혹시 나 같이 반 생활이 불편한 친구들은 없을까, 혹시, 우리 반 언니들도 이기적이어서 반을 떠났다기보다는 나처럼 불편했던 게 아닐까, 내가 떠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여성주의 소모임을 만났습니다.

사회과학대 여성주의 소모임 <실타래>는 2008년 3월, 반에서 생활하기 불편했던 친구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예요. <실타래>라는 이름은 우리가 겪어왔던 엉켜있는 문제들을 실타래처럼 술술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지어졌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놀던 방식대로 커피 한잔 앞에 놓고 수다떨기도 하고, 놀다 지치면 책도 읽고, 가끔 영화나 연극도 보러 가고, 남자친구들을 응원하기보다는 내 몸을 움직여 운동도 하고, 면생리대처럼 내 몸에 필요한 물건도 조물조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이야기를 눈치보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몇 살 차이난다고 짝뿔이 존재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 왜 여자가 담배를 피워? 라는 시선을 보내지 않는, 머리가 아픈데 굳이 한잔 더 하라며 나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이곳에서 만났거든요.

나처럼 반에 머무르는 게 불편한 사람이 혹시 또 있다면, 함께 하지 않겠어요?

1 나누기 010 9334 5906 :-)



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실타래 활동을 하기까지!

나는 1학년 때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키도 작고, 통통하고, 안경까지 쓴, 예쁘지도 않은 여자 새내기에게는 관심 받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도 큰 편이 아니라서 시끄러운 고집집이며 술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도 아니었다. OT에서 나와 누군가의 대화는 항상,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정도에서 끝이 나서 그 이후로는 서로 어색해하며 눈을 못 마주쳤던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도 나는 나대로 반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싶었다. FM을 제대로 해낸 적이 없어, 통학하느라 술도 마음껏 못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도, 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가는 친구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안 기나긴 공강 시간을 반방에서 보내고, 반 클럽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고, ‘공식’ 행사들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결국 농담처럼 지나가는 술자리 영웅담이나(주로 어제 누가 취해서 무슨 부끄러운 일까지 해버렸다는 등), 누구와 누군가를 억지로 엮으려는 과도한 스캔들 퍼뜨리기나,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은근한 점수 매기기 없이 반 활동은 불가능한 것이여 여기에 짚 수 없는 나는 그대로 아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주류 반 문화에 짚 수 없는 데에 대해서 천만가지 이유라도 댈 수 있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많은 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만 괜히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반방에 더 열심히 갔고, 집에 ‘오늘 진짜 딱 하루만 늦게 들어갈 게요’ 빌면서 뒤풀이에 남곤 했다. 그래도 내가 별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별척으로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목소리 갈라질 때까지 FM이며 용원을 하는 것도 여전히 힘들고 어색했다.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도 예의 없이 평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면 반이 몹시리치게 싫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몇몇 동기들은 차츰 반 밖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아갔고, 반에 남은 (남자)선배들과 그들이 아껴마지 않는 (남자)새내기들은 ‘반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나도, 심적으로 어느 정도 ‘주류’인 그들에게 동조했다.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만 좋자고 피하면 다인가? 싶은 마음이었던 거 같다.

그렇게 정신없는 1학기를 마무리하고 나니 기나긴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반 행사랄 것도 딱히 없었고 쪽 혼자 내키는 대로 보내는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지금까지 내 대학생활을 돌아보고 있자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에서 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소속이나 학번, 이름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사람은 있을까? 반대로 내가 반 사람들 중에 잘 아는 사람은 있는 걸까? 반활동을 그만 둔 그 많은 사람들은 다른 활동에 행복해하면서 왜 유독 반에 나오기를 그렇게 꺼려하는 걸까? 나는 왜 반활동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계속해서 반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걸까? 온갖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뒤덮었지만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반에서 풀어내고 반 문화를 조금은 바꿔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후에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반활동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을 은근히 말해보기도 하고,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며 반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슬쩍 떠보기도 했다. 딱히 대안적인 활동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지만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틀지워진 반활동에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나 혼자만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씩 용기가 생겨났다. 그래서 반 클럽에 '이기적인 여학생들, 왜 반활동 안 하나'라는 글이 올라올 때면 '그게 누군가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냐, 반 문화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어서 그런 거냐' 하고 '발칙'하게 몇 마디씩 적어서 싸워보일 수 있었다. 선배들이 여학생과 남학생을 엮어서 '사겨라' 구호를 외칠 때면 싫은 티를 팍 내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선배들에게 무안을 겪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싸우는 건 참 지치더라. 반 문화의 남성중심적인, (이성)연애중심적인 (그리고 이들이 합쳐져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은 싸울 각오를 해야만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워낙 혼자 싸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이미 반에 관심이 없어진 사람도 많았고,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편히 알면서 내 말에 공감하고 있더라도 후한이 두려워서 쉬이 입을 못 댄 사람도 많았다. 결국 나는 '충분히 굳세지 못한' 나를 자책하며 반활동을 고이 집어두었다.

그 뒤로 1년여 간 공동체를 찾아 기웃거리다가, 라하라는 친구를 만났다. 그녀도 그녀의 반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그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었다. 우리가 겪은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린 그 때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를 나누고 싶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만들어내고 있을 불편함에 대해서도 함께 성찰하면서 알콩달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라하도 나도, 반에 돌아가서 다시금 이런 이야기를 하자니 겁이 많이 났다. 이미 '그들만의 문화'가 짙을 수 없는 것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하는 우리는 그저 '반활동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은 여학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응, 그 때 확실히 깨달았다. 내가 반활동을 그만 둔 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대신 우리는 함께 여성주의 소모임을 만들었다. 모임 이름도 없이 '사회과학대 여성주의 소모임에 함께해요!'라고만 써서 뽑은 종이를 들고 다니며 열심히 화장실 간마다, 보이는 여학생휴게실마다 붙이던 기억이 난다. 그 때 돌아다니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던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즐겁다. 친구들에게 우리 이런 모임 함께 하자고 제안할 때면 무슨 대답을 듣게 될까 두근두근 마음이 뛰었고, 라하나 내게 '홍보물 보고 연락드린다'라는 문자가 오면 펄 듯이 좋아했다.

그렇게 모인 우리 모임에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다섯 명 정도로 첫 모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끼리 모임 이름도 정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자고 실타래,라고 했다) 책도 함께 읽고 영화도 보고 소소하니 술도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일상에 힘을 주었다. 실타래에서 나는 정말 하고 싶었던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며 교감할 수 있었다.

지금도 과반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당신에게 과반이라는 공동체만이 유일한 공간은 아니라고 말이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오손도손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함께 있잖아, 발



나만의 실타레를 풀어낸 1년

처음 대학에 들어왔을 때, '대학은 정말 다른 곳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네, 그리고 다르긴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선도부도 없고, 시간표도 자유롭게 팔 수 있었죠. 무엇보다 다르다고 느끼게 해준 건, 백양로에 넘실거리는 플랑들—제가 대학에서 원했던 그 '다름'은 더 '진보적'일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였던 거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반의 문화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았고 느꼈어요. 반에선 별 고민도 느껴지지 않았고 술과 게임만 있는 공간 같았어요.

대학에 오기 전부터 어렵듯이 알게 된 '여성주의'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사과대에 여성주의 소모임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 홍보물을 보게 됐어요. 반이 여성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여성주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느껴져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성주의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알고 싶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같이 소모임을 하게 되었죠.

실타레에서는 나이가 달라도 서로 존댓말을 쓰거나 상호합의하에 반말을 해요. 나이가 한살만 차이 나도 바로 위아래가 나뉘는 우리나라의 나이주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는 건가보다—했었는데, 그냥 깨리면 충분히 쉼이 있는 것이었어요. 실타레에서는 남성중심적인 술문화, 응원문화, FM등에 대해서 불편했던 점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작년 초에는 공개세미나로 "대안 생리대 만들기"를 했어요. 평소에 쓰는 일회용 생리대가, '깨끗함'의 이미지를 위해 얼마나 몸에 안 좋은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처음 알게 되었죠. 왜 생리를 숨겨야만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게 되었어요. 공개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다 같이 북작북작 면생리대를 만들었어요. 직접 손으로 만들다보니 시간은 꽤 걸렸지만, 만들고 나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사용해보니 정말 더 뽕뽕송송하고 편했어요.

독립영화 '쇼킹패밀리'를 보러 홍대에 간 적도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였어요. 가족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여성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강요되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게 되었죠.

실타레에서 주로 한 것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한 것이에요. 세미나라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 수다를 떠는 느낌이 더 강했답니다. 성적 다양성, 여성노동권, 군사주의, 다이어트, 몸·육망 등 다들 관심이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세미나를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았고, 세미나를 통해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선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타레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많은 것도 알게 되고 사람들과 생각, 경험 등을 나누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타레는 대학에 들어왔을 때 갖고 있던 여성주의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준 공간이었어요. 여성주의에 대해 즐겁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실타레를 함께 하는 거 어때요?!

_라임



실타레에서 강!릭! 추천하는 책들!!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트베르그 지음,
노옥재, 엄연수, 윤자영, 이현정 옮김,
황금가지

《이갈리아의 딸들》은 가부장제 하의 성역할체계가 뒤흔든 가상의 나라, '이갈리아'를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 소년 페르니우스는 어부가 되고 싶어했지만 옴(여성)만이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몇몇 옴에 의한 성폭력을 겪은 후 땀옴(남성)해방 운동에 나선다. 이 '뒤집어 보기'를 통해 작가는 성별권력, 동성애, 성역할, 성폭력, 월경과 출산, 브래지어와 같은 여성 신체에 대한 억압, 여성운동과 같은 현실사회의 이슈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현대사회에 여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고 단정하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책.

《섹슈얼리티 강의 1, 2》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음, 동녘

섹슈얼리티란 성적 욕망, 성적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와 규범 등을 뜻한다. 이 책은 한국의 섹슈얼리티 담론의 지형을 살피며, 억압당하고 있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전면으로 들추어내고 있다. 여성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만큼 학술적이면서도 일상과 밀착하여 포르노그래피, 다이어트, 성매매, 낙태, 성폭력, 대중매체 속의 여성 등의 이슈를 다룬다. 1권은 현재 절판되었으나 총여학생회실 페미니러에 비치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길.

《여성과 남녀공학대학교의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 나임윤경 지음, 학영사

한국 남녀공학대학교의 가부장성에 대해 다룬다. '옴'이라는 호칭에 내재되어 있는 성별권력, 남녀공학의 성폭력, FM등 반문화와 남학생이 주도하는 동아리 문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속에서 가부장성을 체화하기도 하고 벗어나려 노력하기도 하는 여학생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저자가 소개하는, 여자친구들이 직접 쓴 쪽글들을 읽다 보면 다시 한 번 주변을 돌아보며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게 된다. 어딘가 불편한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공감대를 찾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한다.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수천만가지 방법

살에서 여성주의를 말하는 방법은 수천만가지정도 될 것입니다. 나도 신나게, 즐겁게 여성주의를 풀어내고 싶은 당신, 친구들과 음악하면서, 영화하면서, 춤추면서 여성주의를 퍼령퍼령 외치고 싶은 당신, 혼을 속 빼놓는 수다 속에 여성주의를 녹여내고 싶은 당신, 재기 넘치는 여성주의자 당신, 당신들! 여기 언니들이 조물조물 만들어 낸 여성주의 판들을 소개합니다. 다 읽고 나면 무언가 시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이 몸이 근질거린다는 부작용이 있으니 명심하십시오. ^^

꿈꾸는 지렁이들 (<http://www.unninet.net/ecofeminist>)

2000년에 시작된 '꿈꾸는 지렁이들의 모임(꿈지모)'은 에코페미니즘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며 일상적 실천을 고민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지렁이"라는 명칭은 묵묵히 꿈틀대며 흙을 살리고 기쁨지게 하는 지렁이들이 생명을 양육하고 돌봐왔으면서도 늘 무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과 닮았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꿈지모는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온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여성의 눈'으로 생태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생태적이고 여성 해방적인 감수성과 문화를 새롭게 찾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꿈꾸는 지렁이들 (젊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세상보기)> (2003, 환경과생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책에는 오늘날의 생태 위기와 가부장적 사회 현실에 대한 젊은 에코페미니즘의 가치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면서 실천적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리대가 여성건강을 만친다> <화려한 화장품의 어두운 그늘> <농약을 통해 본 "여성 몸"의 정치학> <환경호르몬과 여성건강> <생명공학과 불임치료에서 겪는 여성의 고통과 소외> <여성이 본 에너지위기와 대안> 등 19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스윙시스터즈 (cafe.daum.net/swingsisters)

스윙시스터즈는 여성들이 스윙을 통해 서로와, 또 자신의 몸과 즐겁게 관계 맺어가는 동호회입니다. 스윙시스터즈는 특별히 여성주의를 모토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스윙과 같은 커플댄스에서 가려져있던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 댄스의 규범 속에 숨겨져 있는 남녀 성역할구분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성애주의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문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커플댄스에서 남자가 리더하고 여자가 따라가는 일관적 구도를 뒤집음과 동시에 남성은 더 남성적일 것, 여성은 더 여성적일 것을 권장하는 가부장제에 비웃음을 날려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춤을 출 수 있고, 또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윙, 스윙 시스터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매애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야성의 꽃다방 (<http://www.unninet.net/dabang>)

2006년 3월 6일에 시작된 '야성의 꽃다방'(이하 꽃다방)은 여성주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꽃다방은 처음에 '비혼 페미니스트를 위한 방송'으로 시작했습니다. 비혼 1인 가구가 142만7천 가구나 되지만 비혼 여성들이 살아가며 부딪히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 여부를 떠나 2030 여성들이 청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꽃다방에서 수다를 떨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포근하게 주고받습니다. 현재는 야밤법석, 날아라 책갈피, 플레이걸, 콩트야삭, 비혼여성 살아남기, 페마주, B급상당 등의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다방은 마포 FM 100.7 Mhz (본방송: 월요일 밤 12:00 ~ 01:00, 재방송: 화요일 밤 12:00 ~ 01:00)에서 들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못 들어도 꽃다방 커뮤니티(www.unninet.net/dabang)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

_파니



이상한 나라에 던지는 질문 (앨리스)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앨리스'를 소개합니다^^

사람(man)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man)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man)은 죽는다.

앨리스는 여성(woman)이다.

앨리스는.....?

앨리스라는 이름은 이 삼단 논법에서 나왔답니다.

이제 앨리스는 죽을 수도, 죽지 않을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앨리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성(그것도 사회적으로 '남자다움'이라고 인정받는 모습의 남성)만을 기준으로 상정하는 이 세상에서는, 앨리스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알파걸과 골드미스의 등장을 너도나도 호들갑스럽게 떠들대는 이 세상.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이 살기 좋은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비정규직 일자리의 70%가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꿈을 포기하고 '취직'('취직' 대신 '시집'을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차별에서 벗어나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으려 애들바둥해야 하는 여대생들의 처지는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할까요? 뉴스를

보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는 것만 같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들은 대체 어떻게 종식될 수 있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나라'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이 해답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성주의(페미니즘 Feminism)입니다.

앨리스는 또 다른 앨리스와 함께 끊임없이 이 세상에 물음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힘들어하는 개개인이 현실을 체념하거나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공간에서부터 변화를 만들며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싶습니다.

2009년에는 3.8여성의 날 행사 참여, 여성주의 입문 세미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세미나,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 활동, 학내 여성주의 사업 펼치기, 소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문과대 외솔관 지하 1층에 곧 앨리스의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니깐, 놀러와주세요^^
..앨리스와 함께할 또 다른 앨리스, 당신을 기다립니다 ^^

1궁금한 점이 있거나 함께하고 싶은 분은
010 7160 9978
(사학과 유미)로
연제든
연락주세요♡



함께 고민하기, 그 속에서 찾아가는

의미 있는 페미니즘

—앨리스 겨울방학 세미나를 함께 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대학생이 된 나에게 달라진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그 중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넘어가게 된 점이야. 매일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올 때, 혹시 누가 뒤에서 날 쫓아 오는 건 아닐지 하는 불안감에 대해서 여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했던 생각부터 시작해서, 명절 때 다 같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는 건 모두 할머니와 큰엄마, 엄마 몫이었던 것에 대해서도 뭐 이런 거 다 여자가 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했던 생각, 반이나 동아리 같은 곳에서 귀엽고 예쁜 친구들이 이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뭐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했던 생각들, 어쩌면 난 단지 고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는 생각 하나로 정당화 시켰던 거 같아.

이런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생각들을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해 준 것이 여성주의가 나에게 준 선물이야. 하지만 이 선물을 받는 과정이 결코 편하지 만은 않았어. 끊임없이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읽고 이야기 하면서 가끔씩은 전처럼 현실에 그냥 안주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왜냐면 고민하고,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생각보다 행복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정희진 씨의 글이 떠올라. "... 여성주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편안할 수는 더욱이 없다. 다른 렌즈를 착용했을 때 눈의 이물감은 어쩔 수

없다. 여성주의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배 규범, '상식'에 도전하는 모든 새로운 언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지지해준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지지해주는 여성주의, 이런 지지감과 의미있음은 내가 앨리스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기분들이야. 한 달 좀 넘게 사람들과 여성의 노동권, 섹슈얼리티, 모성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의문들과, 그 동안 내가 불편해했던 것들에 대한 답들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었지.

앨리스 세미나는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파트 하나하나가 참 좋은 내용들이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고른다면 가족 부분에서 '모성'에 대해 다룬 부분이었어. 아마 나의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그랬을꺼야. 지방에 살던 내가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집을 떠나게 되자 나보다도 어머니가 더욱 힘들어 하셨어. 그동안 항상 당신 곁에서 소중하게 길러온 자식이 이제 품에서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이 힘드셨나봐. 처음엔 그냥 그런 엄마가 짜증이 나더라구. 그리고 단순히 엄마에 대한 연민이 들어. 엄마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해. 하는 생각 이었던 거지.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결코 어머니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었어. 왜 어머니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버렸을 수밖에 없는지, 왜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들을 길러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했던 거지.

이런 생각들을 '모성 이데올로기' 부분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쉽게 풀어갈 수 있었어. 지금 사회는 모든 여성을 연명과 성 정체성, 혼인 의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어머니가 될 존재로 간주하지.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여 생물학적 어머니가 된 여성들의 정체성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정의해버려. 이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어머니들의 꿈과 욕구와 가능성들은 모두 무시되어버리는 거지. 이런 사회적 맥락의 이해 없이는 어머니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단지 불편했던 순간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 할 수 있는 곳이 나예겐 '엘리스'였어. 또한 여성주의였지. 이런 여성주의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 숨겨진 가능성들,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서로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의 이야기를 시작 할 수 있는 공간,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페미니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언제든지 환영해. 함께하자! ^^

_지은



엘리스에서 함께 읽은 책!

《페미니즘의 도전》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한창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을 때, 한 선배가 이 책을 선물해주었다. 그리고 그 책을 내게 선물하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러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지는 말아라.' 라고 책 앞장에 써놓았었다. 페미니즘은 결코 '피해자'인 여성들을 위로하는 언어는 아니다. 페미니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려 하는, 변혁의 언어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이 책은 그 동안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 혹은 알면서도, 알아서 불편해하면서도 결코 입 밖으로 내뱉어질 수 없었던 것들을 언어화했다. 그래서 공감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충격도 받는다. 주변에 있던 것이 온통 억압과 소통의 부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때까지는 그저 관찰했던 것들이 반여성주의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서 결코 나 자신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 역시 가해자일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된다. 그리고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

'다른 렌즈를 착용했을 때 눈의 이물감은 어쩔 수 없다. 여성주의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배 규범, '상식'에 도전하는 모든 새로운 언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지지해준다. 여성주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책 중에서 소통하고 협상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이제는 나의 일상뿐만 아니라 모두의 일상 속에서 페미니즘이 있었으면 한다. 누군가는 항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만든 큰 목소리 대신에, 이때까지는 그저 숨 죽였던 울음소리를 듣고자 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자 한다. 이 책을 통해서, 또 페미니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었다. 가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것인데도 직장일과 가사 노동을 전담해왔던 나의 어머니와, 그 동안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불편함인 줄 몰랐던 여자 대학생으로의 나의 모습과,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팔레스타인 난민 등 마찬가지로 지배적 권력과 규범에 의해 타자화되고 고통받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다시 한 번 선배가 적어준 글귀를 바라보게 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러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지는 말아라.'

_MJ

앨리스에서 함께 읽은 책2

《우리들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여성 정치인 비율은 대선거를 거칠수록 높아지고 능력 있는 여성 CEO, 최연소 여성 교수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뉴스에 나온다. 서비스 직종이 더 중요해지는 21세기에 여성은 주도적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들 말한다. 여기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정말인가' 되문게 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녀들의 이름은 '이랜드 여성 노동자'이다.

《우리들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는 길고 험난했던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장기파업동안의 겪었던 일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실 그녀들을 반찬값이나 구하러 나온 편한 신세로 바라보는 눈들도 없지 않다. 이러한 시선들은 여성의 노동력을 남성의 그것과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평가절하 되고 있는지는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랜드 사측의 횡포는 홈페이지를 까르푸로부터 인수합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근무자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이밖에도 인원 감축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2007년 여름 이랜드 사태는 일어나게 된다. 부러먹던 것도 부족했던지 사측은 비정규 보호법을 이용해 백명 남짓한 캐서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처리한 것이었다.

그녀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에 맞서 연대로써 저항했다. 몇 달 전 집회현장에서 내가 본 그녀들은 투사였다. 자신의 권리를 소리 높여 외치고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법을 아는 그녀들은 '진짜 노동자'가 되어있었다.

책에서 그녀들은 평범한 주부였던 자신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 놀라워하고 있다. 이랜드 사태 전의 그녀들은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신세한탄만 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었다고 한다. 1년이 넘는 장기투쟁을 통해 그녀들은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 방법은 신세한탄도 아니고, 자기계발을 통해 더 나은 직장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현실에 저항하는 것. '연대'로서 잘못된 현실에 맞서는 것이었다. 자기 혼자만 잠깐의 미래로의 도약을 꿈꾸는 것이 아닌 체제에 대한 저항. 그것이 여성노동자라는 사회적인식의 굴레를 깨드리고 그녀들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지 않다. 모순을 체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는 역사, 정치, 경제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여성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여성에 대한 야만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 그것은 페미니즘이 될 것이다.

현승

앨리스에서 함께 읽은 책3

《행복한 페미니즘-벨 훅스》

Feminism is for Everybody-Bell Hooks



원제는 Feminism is for Everybody.

저자 서문에도 보듯이 이 책은 "페미니즘에 대한 간단하고 읽기 쉬운 안내서"로 쓰여졌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제목은 페미니즘 자체가 불평등주의나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온 책이다. 페미니즘은 남녀모두에게 성차를 극복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페미니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페미니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페미니즘이 반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페미니즘을 막 잡힌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한 책이다.

"지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보라... 우리 모두가 그냥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세상, 평화와 가능성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보라. 페미니즘 혁명만으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인종주의, 학벌주의,

제국주의 역사도 종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자기를 실현하는 여자와 남자가 된다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더불어 살면서 자유와 정의의 꿈, 그리고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현실에서 성취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더 가까이 오라. 페미니즘이 당신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지켜보라. 더 가까이 오라.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임."

철운

그냥 별 생각없이 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여대생들의
속닥거리는 이야기. 어느날 갑자기 팡팡팡팡~ 하는 잡지가
만들어보고 싶어진 애들끼리 야~ 두달간 음모를 꾸미다가
결성, 달랑 셋이서 ^{창간호} **포큐파인** ^{업는 실력으로 뭐}
좀 그려보겠다고 **2009. 03월** ^{공공거리로 왔네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또 (!)}

있다면 지면 **Porcupine** ^{어딘가에 우리}
연락처가 있을 ^{여대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월경!}
아 근데 왜 이름이 ^{안타} ^{잡지} [♡] **포큐파인** ^{파인이나구요,}
따끔따끔 가시 세우고 ^{날카롭게 사는}
사랑들? 나 그런 ^{깊은 뜻 없어요.}
생각없이 그냥 ^{헤헤 헤헤}
이름 고민만 ^{한달쯤 하다가}
답답해서 아무 책이나 펴놓았는데 눈에 띄어서 골랐어요. '포큐파인?'
검색해보니 '남미치랑이' '호지' 란요. 뭐 고등요. 이런 거라갈래.. 차라
막 고른건데요. 뭐. 이름 같은 게 중요하구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자가 특권'
중요한거죠. 이번 호 이야기는 여대생다운 옷차림, 통금과 술자리,
사랑들과 친해지는 여러가지 방식, 여휴(여학생 휴게실) 둘러다
보기, 게스트페이지, 또..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보니 불만만 만화책
얘기.. 예, 또.. 아 까먹었다 사실 원고 나옴에 전에 표지 쓰는 거라.
무슨 이야기들이 있나 내용은 당신의 눈으로 확인해시길! :D ☺

Porcupine ♡

girl's cartoon



2009년, Porcupine 과 함께 할 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 ~ ~

울무의 이야기

엘모의 이야기

유자의 이야기



나는 어려서부터 순정만화를 좋아했었다. 순정만화라는 분류는 참 특이하다. 다른 만화들은 요리, 스포츠, 미스터리, 판타지 등등 소재에 따라 분류하는데, 순정만화는 일단 순정만화이고 본다. 순정만화 작가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예상 독자도 여성이라면 소재무관 '순정만화'라고 불리는 것이다. 갑자기 순정만화 타령이라고? 글썄... 이렇게 싸잡아 '순정'이라는 사방한 문구로 표현되는 만화가 어떨 땐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순정만화여서 느낄 수 있는 감성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아서 일까?

계모는 이유 없이 일단 나쁘고 보고, 소녀들에겐 사랑만이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만화는 순정만화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되었든 순정만화는 그녀들이 주인공이고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말이다. 그래서 난 내가 만화가가 된다면 근질근질하던 부분을 통째 상쾌하게 끌어주는 순정만화를 그려겠다고 마음먹었었다. 여자에게 순정만화를 본다고 하면 '아직 철없고 세상물정 모른다'고 하지만 철없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도발적일 수 있지 않을까나.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 "감정은 액체일거야. 흘러 넘치잖아." 섬세한 순정만화의 세계는 흐르고 넘쳐 나를 적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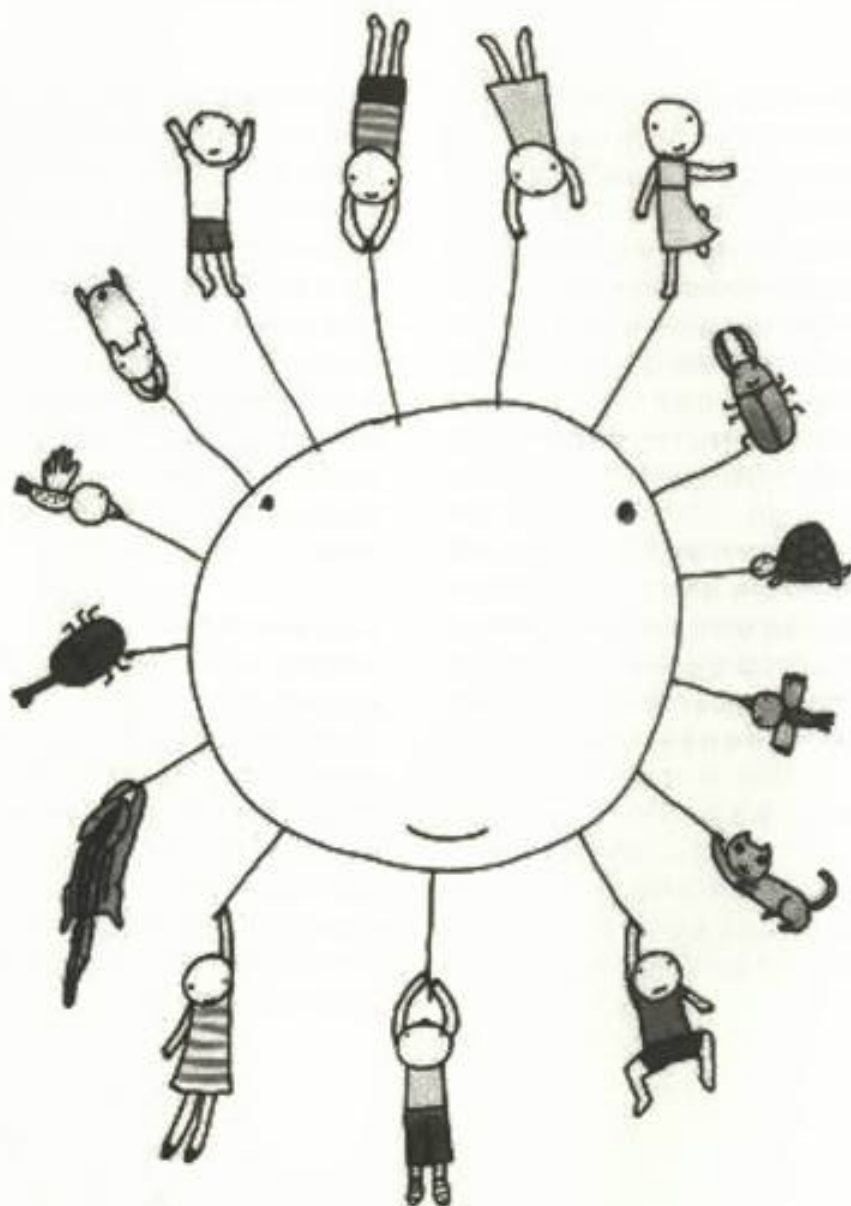
순정만화는 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소년만화나 아저씨만화도 마찬가지지만) 만화책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끌어낸다. 잔잔하고 행복한 물빛 이야기가 있는가하면 가학적이고 뇌속 신경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있고 폭풍 튀고 마냥 기쁘기만 한 이야기도 있는데다가 가슴이 설레고 마구 아려지는 이야기도 있다.

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만화책만 들어도 그 사람 마음 속 세계의 일부를 짐작할 수가 있다. 나에게 있어서 순정만화는 감성이다. 우린 궁합이 잘 맞는 편이다. 나 자체가 감성이니까. 나도 나의 감성을 흘러내고 싶어져서 포큐파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1. 중고교시절에는 내내 만화동아리에서 활동할 만큼 열정이 넘쳤건만, 친구들 중에 상당수도 만화/애니메이션 관련으로 진로를 결정했지만 나는 공부(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공부 말이다)를 선택했다. 그나마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서였다. 만화/따위'에 열정을 가지는 것에 대한 미웃음, 그게 싫었던 것 같기도 하다. 비교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대학에 와서도, 연필을 들기가 쉽지 않았다. 이미 자신감도 상실했고, 열정도 식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펜을 들면서, 잊었던 내 그림을 다시 보게 되었다.

2. 계속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최근 웹툰을 자주 보면서 느낀건데, 요새는 만화가 대세다. 글보다 그림으로 전달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고, 내용도 더 쏙쏙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면이나 웹을 통해 쉽게 대량으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다. 내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이야기의 방식을 개척하고 싶은 당신, 같이 끄적거리려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마냥 행복한 관계들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마냥 즐겁게 웃고 남기기에는 찝찝하고 불편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 사람의 성찰 없는 한 마디, 그 공동체의 말도 안 되는 방식들, 나의 경험을 삭제하고,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너무도 남성중심적인 공동체들, 겪을수록 힘이 빠지고, 질리고, 분노하고, 함께 살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관계들 속에서 문제제기 한 마디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혼자 식힐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물어내는 자신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침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공감을 나누고, 함께 살 공간은 필요합니다.

함께 성찰하면서, 이야기해나가면서, 또 문제제기하면서 그렇게 같이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곳곳에서 다양하게 여성주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루면 어떨까, 싶었어요. 처음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가고, 공박공박 무언가를 만들어나가면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에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여성주의 만화 매체, 여성주의 세미나 모임, 여학생 농구 소모임 등 여러 소모임들이 모여 있구요. 공박공박 소책자도 만들어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만들었어요.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들이 곳곳에 있겠지요. 여성주의적인 고민을 풀어내는 소모임을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모임 네트워크는 여러 소모임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자리니까요. 언제든지 와서 고민과 힘 나누면서 연대해나가요!

◆
후기
◆

◆
먼저, 이 책을 내는데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신 팬더와 고양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한 물 희망도 없이 꺾였을 테지요. 이 책을 그들에게 드리고 싶네요. 더불어 토끼, 고래, 다람쥐, 개, 당근, 나무동치, 해리포터, 개기와 재수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연희

◆
아아 모이고 만들고 하면서 너무 재밌고
힘받았다!! 나무동치와 당근은 내 것이야!!!!
리임

◆
이렇게 오고록히 모인 이야기들, 일상을
비틀거리 춤추게 만들고, 또 일상을 찌렁찌렁
울려 수천만가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겠지—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아. 그때까지 얼마간은 또 무거운 마음을
다독이면서, 함께.
발

◆
꼬막에 쏘주, 혹은 오뎡탕에 정종대포, 잊히♡
유나

◆
이런 거 너무 힘나잖아요! 이 모든 그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요 책을 집어 읽을 사람들도,
만들고 만나고 만날 때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산나서 킁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앙><
파니

◆
얘기하고 글 쓰면서 갑자기 정리되는 것들,
깨달는 것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참엔
이렇게 자주 모임지 모르고 업적 말았지만,
덕분에 좋은 시간! 글 쓸 때 마지막 문장이
어려웠던 것처럼(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
ㅠㅠ) 후기도 어쩐지 어렵네요! 못다한
얘기들은 각테일 마실 때 같이해요.
유미

◆
우리 진짜 각테일 먹으러 갈 거죠?
리달

◆
그럼 나는 블루 하와이 사파이어를 먹겠어.
율무

◆
모두가 수고한만큼, 이 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소모임을 찾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난 핑크레이디 먹올래!
ㄱㅇ

◇
함께한 사람들
◇

◇
여성노동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날려라, 빗자루>

◇
여학생 농구단, 농구로 담을 허무는 <농담>

◇
공대생의 일상에, 달아라 <물음표>

◇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는 <물구나무>

◇
우리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실타래>

◇
이상한 나라에 던지는 질문 <앨리스>

◇
꿈과 사랑의 여대생 만화잡지 <포큐파인>



21대 총여학생회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울림>